

“예술적 삶 그려내는 전주 만들 것”

전주문화재단,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주요 정책사업 발표... “소통 채널 다각화해 나갈 예정”

“문화적 상상력으로 예술적 삶을 그려내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7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탄소예술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탄소기업의 후원이 자발적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탄소예술작품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JEC WORLD 2023' (프랑스, 파리)에 3명의 탄소예술작가가 참여해 탄소예술장르를 세계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국재단 최초로 지역작가들의 오디오북 시장의 진입기회를 제공, '제9회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제작된 작품이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상위 랭크 됐으며, 올해는 작가와 작품 홍보에 역점을 뒀 선정작가 순회 낭독회와, 온라인 플랫폼 내 상위 노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그린리네상스 프로젝트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2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그린리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기로 했다.

이어 팔복예술대학에서는 신중년의 문화적 삶을 위한 인문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전주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는 기초문화재단 최초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예술인·단체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매칭을 시범 운영하고, 별도의 이팝프렌즈 홈페이지를 구축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신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7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설해 문문길 등 구도심의 공실을 활용해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개관한 전주한벽문화관 한벽전시실은 시각예술작가들에게 작품 발표공간이 마련,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끝으로, 재단은 팔복예술공장과 한벽전시실에서 한·중·일 현대미술교류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시각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이 전시는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라는 의제로 진행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난 2년 여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선진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남는 임기 동안 선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예술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 대표이사는 전국 116개 지역문화재단 협의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를 전주에 유치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설 연휴’ 따뜻한 실내 관광지 추천

익산시, 교도소세트장 · 다이노키즈월드 등서 문화콘텐츠 만끽

익산시가 겨울철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따뜻한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내 문화관광지를 추천한다.

우선 익산 여행만의 이색콘텐츠인 교도소세트장은 설 명절 관광객들을 위해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모두 개방한다. 연휴 기간에는 죄수복 체험복을 입고 교도소세트장에서 컨셉 사진의 추억과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간식 이벤트를 가래떡을 맛볼 수 있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은 역사문화 박물관 투어에 참여하면 된다.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과 실내 놀이 체험장 다이노키즈월드는 연휴 내내 개관하며 국립익산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은 명절 당일(22일)을 제외하고는 익산을 찾는 귀향객, 관광객 등을 맞이한다.

특히 백제왕궁박물관은 토끼해를 맞아 매일 선착순 50명씩 토끼 우드시어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박물관은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은 토끼와 천연 보석 동물들'을 개최한다.

한편 고즈넉한 겨울 속에 걷는 세계유산 관광지도 일품이다. 미륵산을 배경으로 탁 트인 풍광에 펼쳐지는 미륵사지와 야경이 아름다운 왕궁리유적은 이색적 야외관광지로 상시개방한다. 왕궁리유적에서는 백제 의복을 입고 체험프로그램과 박물관을 둘러보다면 더욱 재미있는 여행이 된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관광안내소는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정가해설시간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흥미로운 백제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서동농촌테마공원에는 전통놀이마당이 있어 널뛰기, 투호, 그네 등을 즐길 수 있고 밤이 되면 유등전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연휴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익산의 관광지를 찾는다면 후회없는 설날 여행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숙박여행객을 위해 농촌체험마을은 체험프로그램과 쾌적한 숙박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으로 강력 추천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위촉교수 공모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오는 24일까지 2023년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위촉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한식조리기능사, △기초드로잉, △가곡, △글쓰기 지도, △시낭송, △전통차(수제침, 건강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전통악기(가야금, 장고), △디베이트 지도사, △이모티콘 제작, △퍼스널컬러 전문가, △발달장애 만들기, △디카세상(사진, 인스타), △현대무용, △자존감 코칭전문가 등 15개다.

관련 서류를 센터 홈페이지(www.jwec.re.kr) 공고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및 이메일(edu@jwec.re.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료자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출강하고 있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혹은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강의 경력 및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정정희 센터장은 "훌륭한 강사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교육수강생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강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사용자 중심의 수요조사를 통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전북도민의 자기 개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을 일했다.

재단에 따르면 충전 금액은 11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향된 금액이다.

전년도 이용자가 2023년도 카드 발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기간은 16~19일 4일간 진행되며, 완료 시 휴대폰 문자로 안내된다.

자동 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모바일앱,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은 17일 세미나실에서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립전주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17일 세미나실에서 제3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기자단원들은 위촉장과 기자증을 받았다. 이후 기자단 운영사항 안내 및 홍보 교육, 박물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국립전주박물관 대학생 SNS 기자단은 블로그 취재 기사 작성과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박물관 행사 취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물관 홍보에 앞장서왔다.

2023년 12월까지 활동하는 이번 기자단은 박

물관 행사와 전시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취재분야와, 영상 촬영·편집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제작분야 각 4명씩 선발됐으며, 모두 전북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국립전주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올해로 3기를 맞이한 대학생 SNS 기자단의 활약으로 온라인 부분 홍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기자단원들이 전시와 교육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을 널리 알릴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